

영암 무화과 산업 ‘위기 타개’...“혁신정책 본격화”

생산·가공·마케팅 등 25개 사업 추진
기찬층이망 보급·신품종 재배면적 확대
무화과연구팀 신설·테마파크 조성 등

영암군이 기후변화에 따른 무화과 산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체질 개선 등 대대적인 혁신 정책을 본격화한다.

16일 영암군에 따르면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이라는 비전으로 무화과 산업을 지역 혁신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2024-2026년 무화과 3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했다.

생산, 가공, 유통, 연구개발, 홍보마케팅(관광) 등 5개 분야 25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계획은 농촌진흥청, 전남농업기술원, 목포대학교, 천연자원연구소 등 9개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도·연구·행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영암군은 병해충 방제를 위한 ‘기찬층이망’ 보급, 청무화과와 신품종 보급 확대, 노지 스마트농업 실증사업 등을 통해 무화과 생산기술의 체질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무화과 병해충 방제를 위해 영암 무화과 농가에서 기찬층이망 처리 사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영암군 제공〉

또한 신품종 청무화과는 기존 품종 홍무화과 대비 총채벌레 피해에 강하고 내한성이 뛰어나 2025년까지 7ha 규모로 재배면적을 확대할 계획

이다. 관촬포 운영, 자동 관수 및 해충 예찰기 도입 등 스마트팜 기반 구축도 병행 중이다.

영암군농업기술센터 내 전국 최초 ‘무화과연구팀’도 신설된다. 이 팀은 병해충 진단, 스마트 재배모델 개발, 신품종 실증 등의 기능을 담당하

며, 현장 농가와 밀착한 연구체계를 통해 실용적인 기술 확산에 나선다. 군은 향후 무화과연구소 설립도 검토하고 있다.

가공·유통 측면에서는 삼호읍에 총사업비 18억원 규모의 무화과 제조·가공시설이 들어설 예

정이다. 이 시설은 잼, 주스, 기능성식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거점으로 활용된다. 영암 무화과는 이미 제과점 생선당, 프랜차이즈 반올림피자사에 납품되며 프리미엄 식재료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관광·체험 콘텐츠도 속속 개발되고 있다. 무화과 테마파크 조성 계획이 수립돼 연구, 체험, 가공, 판매 등이 집적된 복합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무화과 체험형 관광 콘텐츠는 농촌 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는 새로운 모델로 기대를 모은다.

한편 고령화, 품종 다양성 부족, 저장·유통 한계 등 무화과 산업이 마주한 구조적 과제도 적지 않다.

이에 영암군은 청년농 유입 확대, 민관산학 협력 강화 등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정 영암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영암 무화과 산업이 전국을 대표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농업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농가, 연구기관, 행정이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암=나동호 기자

영광군 “정부 RE100산업단지 정책 환영”

국가 에너지 전환 가속화 중요한 축

해상풍력 잠재력 ↑...산단 조성 최적지

영광군은 “최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RE100 산업단지 조성 추진 정책’을 적극 환영한다”고 16일 밝혔다.

RE100 산단은 기업들의 RE100 수요를 100% 충족시켜주면서 지역의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100% 활용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서남해안 지역에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수도권 중심의 전력 수요로 인한 국가적 비효율을 없애고 에너지 공급구조와 대한민국 산업지도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이다.

에너지 신도시를 통해 지방소멸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면서 국가적인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의 중요한 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기업유치를 위한 규제 제로화, 교육과 정주여건 개선, 파격적인 전기요금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단부를 중심으로 기재부, 국토부 등의 관계

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RE100 산업단지·에너지 신도시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제도적 추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영광군은 대규모 태양광 및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활용, 탄소배출 절감과 RE100 요구 기업에 대한 맞춤형 개발, 미래지향적인 친환경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해 최종 후보지 4개소를 선정, 준비 중에 있다.

특히 영광군은 해상풍력 잠재력(약 10GW)이 매우 큰 지역으로 현재도 다수의 대규모 민간 발전사업(약 4GW)이 추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갖는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는 원전(6GW)이 위치하고 있어 산단기업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며 송배전망 설치 비용이 적게 들어 RE100 산단 조성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정부의 서남권 RE100 산단 추진 정책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탄소중립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가 하루 빨리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영광군도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박홍률 전 목포시장 “조국 사면복권 촉구”

서명운동 돌입...표적 수사 비판

박홍률 국민주권전국회의 광주전남본부 공동대표와 목포회원이 ‘검찰개혁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면 복권’을 촉구했다. 〈사진〉

16일 국민주권전국회의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전남 목포 평화광장에서 박홍률 공동대표와 목포지역 회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호소문을 낭독하고 연대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향후 목표 인원 달성까지 목포시 평화광장과 목포역 등을 찾아 동참을 호소하고 연대 서명서를 작성해 정부와 관계기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회원과 지지자들은 호소문을 통해 “우리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사면 복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국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

제를 실현하기 위해 불과 5일간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며 검찰개혁의 단초를 열었다”며 “그가 장관으로 임명된 순간부터 시작된 과잉수사와 편파적 기소는 사법 정의의 근간을 흔들었고 이는 정치적 의도를 배제할 수 없는 표적 수사란 비판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면복권이 정의 회복의 출발점이며 대한민국이 진정한 법치와 공정을 추구하고 있다는 최소한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더 이상의 정치 보복으로 국민 통합을 해치고 법치주의를 역행해서는 안 된다”고 성토했다.

한편 지지자들은 호소문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면복권을 즉각 단행 ▲사법 정의와 정치적 중립성 회복을 위한 전면적인 제도 개혁에 착수 ▲검찰·사법개혁을 위한 국민적 논의를 재개를 정부와 관계기관에 요구했다. /목포=정혜선 기자

‘고온 건조기후’ 해남군, 벼 병해충 확산 선제 대응

전년비 평균 기온 3℃ ↑·일조시간 ↑

민관 합동 예찰단·긴급방제단 투입

해남군이 고온 건조한 기후로 인해 벼 병해충 발생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적기 방제를 적극 당부하며 병해충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16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날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의 평균 기온은 27.6도로 전년 대비 3도 높았으며, 강수량은 0mm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일조시간은 387시간으로 전년 대비 23.6시간 많아 고온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기상 여건은 중국에서 날아오는 벼멸구, 흰등멸구, 흑등나방 등 해충 증식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게 된다. 실제로 벼멸구는 전년보다 10일 빠른 지난 5일 최초 비래(飛來)가 확인됐으며, 고온으로 인해 증식 속도가 빨라져 후기에 발생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한 고온 지속으로 잎집무늬마름병 발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적기에 함께 방제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해남군에서도 벼 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해 적기 방제 지도와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병해충 예찰반을 편성해 매주 병해충 발생 상황을 예찰하고 예찰 정보를 농업인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벼멸



해남군이 벼멸구 발생 상습지에서 드론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구 발생 상습지는 드론과 위성영상을 이용해 발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농협, 농약사, 방제업체 등과 상시 협력해 민관 합동 예찰단을 운영하고 읍면별 긴급방제단을 조직해 적기 예찰과 신속 방제를 위한 체계를 구축했다.

병해충 집중 발생 시기인 7월 하순부터 8월 하순에는 벼 재배 전 면적을 대상으로 약 18억 7천만원의 중점방제비를 투입, 항공방제를 지

원한다.

해남군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9월까지 이어진 무더위로 벼멸구가 발생해 최초로 고온에 따른 농업재해를 인정받는 등 해가 거듭할수록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라며 “지속적인 병해충 발생 예찰과 항공방제 지원 등 선제적 대응으로 군의 고품질 쌀을 차질 없이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신안, 양식어가 ‘고수온’ 피해 예방 체계 돌입

대응반 운영·실시간 수온 정보 제공

신안군은 16일 ‘관내 해역에 ‘고수온 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양식어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선제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오전 9시를 기해 신안군 임자도 부근에서 효지도 부근까지 ‘고수온 주의보’가 발표됐으며, 흑산도 해역에는 ‘고수온 예비특보’가 발표됐다.

완도청정마켓서 전복 30% 할인

완도군은 16일 “특산물 소평물인 ‘완도청정마켓’에서 ‘복날엔 전복, 전복 데이 완도 보양식 특가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벤트는 오는 18일까지 열리며, 30%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쿠폰은 2만원 이상 구매 시 적용 가능하며 타 쿠폰과 중복 사용 가능하다.

또한 완도청정마켓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추가를 하면 2천원 할인 쿠폰을, 정성스러운 후기를 작성하면 선정을 통해 1만원 쿠폰을 지급한다. /완도=윤보현 기자

무안 목우암, 전통사찰로 지정

보수·정비 등 정부 지원

무안군은 16일 “몽탄면 달산리에 위치한 사찰 ‘목우암(사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전통 사찰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무안에서 21년 만에 이뤄진 전통 사찰 신규 등록으로, 1988년 지정된 법천사와 원갑사, 2004년 지정된 도덕사와 약사사에 이어 목우암이 다섯 번째 전통 사찰로 이름을 올렸다.

역사성과 함께 불교 고유의 문화·예술·건축사적 가치를 지닌 사찰을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가 지정된 전통 사찰은 지정 이후 보수·정비와 방재시스템 구축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무안 목우암은 17세기 중반 법천사의 암자로 시작해 성취를 같이했으며, 현재 보물 제225호인 ‘무안 목우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과 전남도 유형문화재 제300호인 ‘무안 목우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을 소장하고 있다. /무안=김상호 기자